

출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무장해 자신만의 '꿈'을 펼쳐보려는 출판인들은 끝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출판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출사표를 내민 새내기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우리 출판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새내기 출판사들의 출사표!

돌풍

'책의 가치를 이르는 출판사'



강경희대표

최근 독특한 음식철학을 담은 에세이집 <런치브레이크 스토리>를 내놓고 출간 신고식을 치른 출판사 '돌풍'은 세태를 잘 반영한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서 출간을 지향한다. 책이 좋아 '뛰어난' 출판계는 두려움

을 느낄만한 시간조차 허락지 않는다고 강경희 대표는 말한다.

"적어도 출발선에 서있으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게 생각되지는 않으니까요."

참신한 의도와 개성적인 내용, 만화가 강모림의 재치있는 삽화를 곁들인 첫번째 책이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비주얼과 텍스트의 가치'를 중시하는 출간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의욕과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건 아니다. '신규출판사'라는 꼬리표는 꽤 무거워서 책 진열에서부터 총판거래까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하지만 작은 난관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처음의 각오, 즉, '세태를 반영한 좋은 책.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책'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지침에서 벗어날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판사 이름이 '돌풍'이다. 혹자는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겠지만 거창한 의도가 아닌 예지몽(?)을 꿰다고 한다.

"출판사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는 문제로 몇 달을 고심

중 이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노트에 영문으로 dolpoong을 쓴 다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돌.풍.'이라고. 잠에서 깨어 생각했죠. 별 도리가 없다고..."

책이라고 해서 모두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함량이 부족한 책들인데도 잘 팔리는 것을 보면 '나도 저런 책을 내볼까?' 생각한다는 솔직한 고백.

"내가 내고자 하는 책이 모두 꼭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조금 더 미뤄둬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풍은 '작품'을 쓰기 위해 고뇌하는 신인작가 발굴에도 힘을 쏟을 작정이다. 그것이야말로 의식이 분명한 출판사가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는 끝은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취재_송보경 기자

스토리텔링 컴퍼니

'이야기 풀어내듯 독자 함께 하는 책 만들터'



이종례대표

연기자 출신의 이종례 대표는 작가와의 인연 때문에 출판사를 열게 된 특별한 경우다. 스토리텔링의 이름표를 달고 처음으로 출간된 <미르신화전기>는 작가 권순규 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쓴 작품이다. SBSi에서 8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소설이지만 무명작가에게 출판

을 제의하는 출판사가 없어 이 대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한다. 판타지 소설인 《미르신화전기》는 심사위원이었던 이현직 PD에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해도 손색없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작가의 인생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출판계 경험도 없는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출판사 등록을 하고 16일 만에 책이 나왔어요. 직원과 직접 밤낮으로 교정을 보았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서점들을 돌며 책을 홍보했습니다.”

말로 뛰는 이 대표의 열정은 《미르신화전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으로 그 보답이 돌아왔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감상 후기를 공유하는 마니아들이 생길 정도이니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것도 당연할 터.

“기획이나 영업, 모든 면에서 오래된 출판사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상식의 틀을 깨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획과 디자인을 추구하고 싶어요. 작은 일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이름도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뜻의 ‘스토리텔링’ 이지 싶다. 독자들과 함께 모여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이 대표는 독자들을 스토리텔링의 숨은 일꾼이라고 말한다.

시리즈물인 《미르신화전기》가 2권이 출간될 때까지 별 반응이 없자 대표인 그녀로서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독자들의 ‘잘 읽었다’는 격려 전화나 메일 덕분에 그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물론 마음 맞는 친구 같은 출판사 식구들의 응원도 빼놓을 수 없다. 상주하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무보수로 도와주는 이들이 많다. 이현직 PD나 송정림 작가처럼 방송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이 대부분.

“출판사가 자리를 잡으면 미디어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고 하지요. 열심히 뛰고 배우겠어요. 이야기를 풀듯 독자들과 함께하는 책을 만들 겁니다.”

취재_이주연 기자

리베르

‘독서는 공부 아닌 놀이’로 정의
‘세계문학작품 다시 번역, 출간하고파’

“출판가의 불황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아예 불황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서 트렌드와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영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출판업도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리베르 박찬영 대표의 당찬 포부다. 불황 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하루에도 몇 개의 출판사들이 출판시장을 들쭉날쭉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출판을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는 데는 박 대표가 가진 책과 출판에 대한 비전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박찬영 대표

박 대표는 책 읽기를 ‘공부’가 아닌 ‘놀이’로 정의한다. 이는 출판사 이름과도 연관이 깊은데, ‘리베르’(liber)라는 출판사 이름에는 다양한 함의가 있다. 사전에는 번식과 성장을 주관하는 전원의 신으로 소개되는데, 그리스 신화의 주신(酒神) 디오니소스와 로마신화의 바커스와 동일시된다.

도서관(library)의 어원이 바로 리베르(liberr)이다. 나무와 번식, 성장, 축제의 이미지가 책의 이미지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이 술이나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책 읽기를 놀이로 생각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책 읽기를 공부가 아닌 놀이로 생각하도록 재미있고 좋은 책을 만들고자 출판사의 이름도 리베르로 정한 것이다.

리베르는 문학과 어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판하고 있지만 주력 분야는 청소년 문학이다. 한국단편소설과 한국고전소설 등 ‘35 시리즈’는 최근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중앙일보 기자와 뉴스위크 한국판 부장을 지낸 박찬영 대표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장르에 구분을 두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세계문학작품을 다시 번역해 출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베르는 현재 박 대표와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팀장, 영업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현재 상황이 최적화된 상태”라고 자신한다. 박 대표는 최적의 멤버로 높은 출판시장의 벽을 넘고자 한다.

취재_장동석 기자